불국토 아미산의 유일한 현존

'곡성 아미산 천태암' B1면에서 계속



부처님오신날 봉축 연등 너머로 노을이 물든다. 천태암은 많은 비경을 품고 있다.



천태암 극락보전.



16나한을 모신 나한전.



천태암에서 보는 모후산.

하늘과 가까운 땅

전라남도 곡성, 아미산 정상 근처에 암자가 하나 있다. 천태암이다. 조계종 화엄사 암자다. 해발 500m, 땅에서 조금 멀어진 땅, 하늘과 좀 더 가까운 땅. 평소에는 자주 가볼 수 없는, 익숙지 않은 자리다. 길을 오르면서, 하늘에 가까워지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시간도 계절도 언어도 걸음도 그리고 눈높이도 달라진다. 올려다보던 산들이 눈 아래에 놓인다. 조계산, 모후산, 무등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곡성군을 흐르는 보성강이 또한 한눈에 들어온다. 운해와 운해 사이로 능선들이 촘촘하게 늘어서고, 강물은 대지의 곳곳을 정성스럽게 적시며 흘러간다. 산과 같이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산, 강과 같이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강 그리고 그 사이에 놓였던 나, 그 모든 것이 한 눈에 들어온다. 비경이다.

암자에 닿는 순간, 걸음의 속도와 간격부터 달라진다. 속도는 필요 없고 간격은 나의 뜻이 아니다. 시간은 시계 속에 있지 않고, 계절의 깊이는 지구의 공전이 아니라 처마 끝에서 궤도 없이 흔들리는 풍경소리가 만들어낸다. 언어는 각자의 것으로, 그것들은 각자의 독백을 위한 것일 뿐이다. 숲속 나무들과 새들과 하늘과 법당의 단청, 불상과 탱화, 텃밭을 오가는 다람쥐와 보이지 않는 곳을 채우고 있는 작은 벌레들까지 모두 독백으로 서있다. 모두는 독백만으로 모두와 함께 살고 있다. 달라진 눈의 높이는 그 독백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달라진다. 땅에서 조금 멀어지고 하늘에 좀 더 가까워진 시간과 계절 속에서 달라진 언어와 달라진 보폭, 그리고 달라진 눈높이로 '나'를 찾아 나선다.

해발 500m, 사는 것들부터 다르다. 처음 보는 벌레들, 처음 보는 꽃잎들, 처음 보는 산새들…. 처음 보는 것들은 등장 자체가 설법이다. 처음 보는 작은 벌레 한 마리는 새로 배우는 문자이며, 처음 보는 붉은 꽃잎 하나는 처음 보는 길이다. 문자는 늘고 길은 많아진다. 설법이다. 세상이 한 뼘 정도는 넓어진다.

각자의 세상은 각자가 본 것들로만 이뤄져 있다. 각자는 자신이 본 것만을 법(法)으로 삼는다. 보지 못한 것들은 한 뼘도 허락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은 하나에서 둘이 되면서부터 힘겨워진다. 나 밖으로는 한 뼘도 허락하지 않는 각자의 세상 때문이 아닐까.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안목 인연

665년(신라 문무왕 5년)에 혜암 율사가 창건한 천태암은 선종의 중흥조 보조국사 지눌 스님과 인연이 깊다.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서 지눌 스님의 이야기가 가장 깊다. 하지만 지눌 스님을 비추는 사료들에 비해 천태암을 적고 있는 사료는 많지 않다.

1195년(고려 명종 25년)부터 상무주암에 은거하며 선의 참뜻을 찾아낸 지눌 스님이 구산선문의 하나인 동리산 태안사를 둘러본 후 천태암에 머물렀다. 자연석굴에 16나한을 모시고 법당과 요사를 중창하여 후학들을 맞았다. 지눌 스님은 이곳의 산세가 중국의 4대 불교성지 중 하나로 알려진 아미산과 닮았다하여 아미산 천태암이라고 이름 지었다. 지금의 산신각 왼편으로 30m 정도 산길을 오르면 지눌 스님이 좌선했던 너럭바위가 있다. 지눌 스님의 좌선대다. 현재는 그 자리가 아직 여법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다. 불사가 추진되고 있다.

〈천태암중수화문〉은 천태암에 대해 "16아라한이 상주하고 칠원성군(七元星君 · 북두칠성)이 강림하는 청정한 곳으로 봉우리의 형상이 평지로부터 우뚝 솟아 마치 서천(西天 · 인도)에서 옮겨온 비래산과 같으며 신선경계의 바위와 낭떠러지가 높게 드리워져 마치 동토의 소림굴과 같아 해동의 승지(勝地)이며 호남의 명구(名區)다"고 적고 있다.

800여 년 전 지눌 스님이 송광사에 처음 오셨을 때, 먼저 살고 있던 주민들을 지금의 주암면 오산리와 천평리 등으로 이주시키고 우물을 파 그들에게 새 터전을 마련해주었다. 그때 만든 우물은 지금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지눌 스님의 설법을 듣고 감화를 받은 주민들과 천태암 16나한들이 지눌 스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스님이 오가는 길을 편안하게 닦았다. 그들은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송광사를 오갈 때마다 장삼 소매 속에 흙을 담아 날랐다. 꺼진 곳은 메우고 솟은 곳은 다져 스님이 다니기 편하게 길을 냈다. 길은 모두 일곱 개로 '토성칠교'라고 부른다. 칠석날 토성칠교로 송광사를 다녀오면 모든 액운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665년 혜암 율사 창건
해발 500m 아미산 정상 암자
조계산 모후산 무등산 한 눈에
보조국사 지눌 스님 수행처
모두 주인 되는 무주공산

천태암은 1957년 화재로 도량이 피해를 입었지만 호연 스님의 원력과 불자들의 동참으로 2004년에 다시 도량을 회복했다. 3년 전부터 주지로 부임한 대주 스님이 선대의 원력을 이어 불사를 이어가고 있다. 스님의 원력은 지금의 천태암이 아니라 1300여 년 전의 천태암에서 시작된다. 이 자리에 부처님의 1300년 세월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동분하고, 그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주하고 있다. 숨어 있는 사료를 찾고 사료와 사료 사이에서 천태암의 근거와 실재를 찾아내고 있다. 덕분에 천태암의 사료는 점점 늘고 있다.

천태암이 자리한 아미산에는 과거에 18개의 절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 사라졌고 천태암만이 유일하게 남았다. 현재 천태암이 자리한 동네 이름은 목사동(木寺洞)면이다. 나무 '木' 자를 분해하면 '十八'이 된다. 풀어보면 '열여덟 개의 사찰이 있는 동네'라는 뜻에 닿는다. 그리고 산의 이름 아미산은 중국의 명산 아미산의 이름과 닿아 있다. 중국의 아미산 역시 산 자체가 불국토이다. 26개의 절이 있고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사찰이 8곳이나 있는 '불산(佛山)'이다. 그렇듯 곡성 아미산의 이름에는 불국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지눌 스님이 천태암을 수행처로 삼아 주석하고, 그 자리를 아미산 천태암이라 부른 것은 응당하고 충분한 연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천태암의 현존을 아미산이라는 이름에서 바라보면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법향으로 가득했던 아미산의 옛 시절이 천태암 편액 하나에 모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서글픈 것이다.

무주공산, 바람도 주인

요사체로 보이는 전각이 하나, 비탈길 위로 큰 법당(극락보전)이 하나, 법당 뒤로 석굴법당(나한전)이 하나, 법당과 산길 사이에 산신각이 하나, 햇살 가득한 곳에 작은 텃밭이 하나 그리고 대중이 하나. 그랬다. 백구 하나가 없다. 천태암은 주지 스님 한 분이 대중의 전부다. 그래서 객이 들면 대번에 표가 난다. 소리 소문 없이 다녀갈 수 없는 곳이다. 아니나 다를까. 도량에 발을 들이기가 무섭게 스님께서 내다본다. 그랬다. 하늘과 좀 더 가까운 땅 천태암에서는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걸음의 속도와 간격은 나의 것이 아니다. 잠시 모든 것을 접는다. 카메라도 수첩도 그리고 나의 이름 석 자도. 이름과 작은 신분과 산을 찾은 목적을 고했다. '초면'이라는 세속의 방식이 우스워진다. 불연에는 초면이란 없는 것일까. 스님으로부터 받아든 찻잔엔 찻물의 온도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언제 만났을까. 그 아득한 시절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삶의 묘미인 듯하다.

"사진 많이 찍고 계시게, 나 잠깐 아래 내려갔다 올 테니."

해가 많이 기울었을 때였다. 스님은 출타했다. 천태암은 주지 스님이 출타하면 무주공산이다. 달리 말하면 머무는 이가 주인이다. 스님의 차량이 도량에서 멀어지고, 암자는 무주공산이 되었다. 절집에 주인의 이름이 따로 없는 것이 본래 모습일 테지만 무주공산에 홀로 남고 보니 진정으로 '끝'에 서는 느낌이다. 바람도 잠시 주인이 되어 머문다. 서쪽 하늘이 물들어간다. 연등 위로 노을이 다가온다. 천태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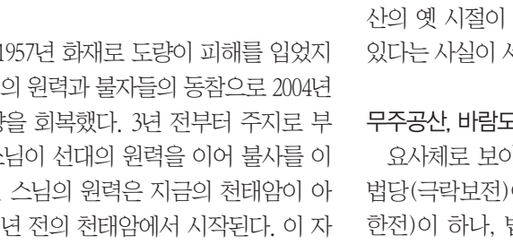
천태암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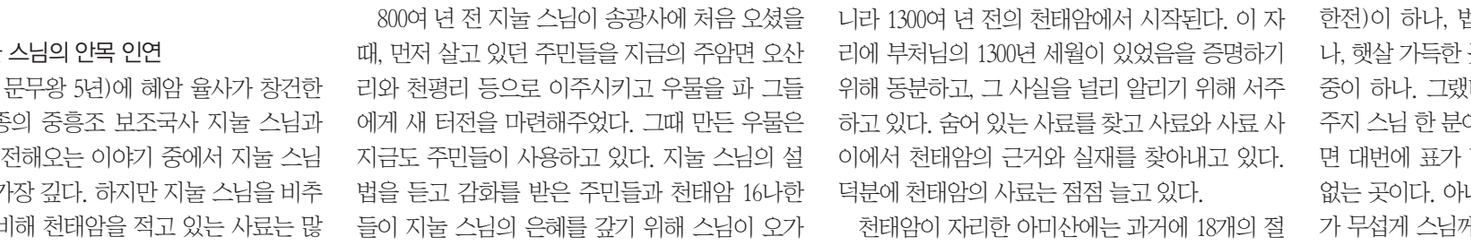
절 입구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다. 호남고속도로 석곡IC에서 지방도와 임도를 이용해 20분 정도 간다. 약 2km의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 한다. 조급한 마음으로 운전하면 길은 힘들다. 느긋한 마음으로 오르면 하늘과 가까워지는 고도를 느끼면서 오를 수 있다.

www.smilebangsu.co.kr NAVER 스마일방수 검색

원각사 정대스님이 적극 추천

지긋지긋한 방수공사
완·벽·시·공





주택/아파트/빌라/공장 등 건물바닥/벽체 방수 전문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자부심

스마일방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253-23번지

- 비 새는 곳 100% 방수 시공 전문
- APT, 주택, 거실, 방, 베란다, 천정, 크랙, 누수 전문 방수 공사
-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및 실내 에폭시 방수 전문
- 폴리 그라우팅(인잭션 방수)



부산일보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제 22403호 19

현장서 쌓은 방수 시공 기술력 '국내1인자' 자부

스마일방수의 오상순 사장은 "하자보수의 핵심은 신용과 성실"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수영구 스마일방수는 20년간 방수 분야에 주력해 온 기업이다. 한 분야에서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술력이다. 현장에서 쌓아 올린 시공 노하우가 경쟁력인 셈이다.

스마일방수 오상순(60) 사장은 "20년 현장을 누볐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웬만하면 누수 지점이 어딘지 감이 온다. 건축물의 기본구조를 파악하면 누수 시나리오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는 경험이 쌓인 결과다"라고 말했다.

2000년 2월 스마일방수를 창업한 오사장은 창업 전에 대우건설 A/S팀 등에서 일하며, 현장의 기술력을 쌓았다. 그중에서 가장 자신 있었던 분야가 아파트 누수를 잡는 방수 기술이었다고 한다.

직접 사업에 뛰어든 이유를 오사장은 "수요는 무한한데, 이때만 해도 방수분야에 정통한 기술자가 없었다. 나만의 기술을 시장에 보여주고 평가받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창업으로 바빠졌지만,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오사장은 자평하고 있다. 실수 없는 방수작업 뒤 의뢰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보람이 크다고 한다. 큰 기업은 아니지만, 방수 분야 기술 하나만은 '국내 제1인자'라는 자부심도 생겼다.

스마일방수 고객 대부분은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오 사장은 금전적인 문제보다 완벽한 시공을 중요시하는 경영철학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방수전문 시공만을 고집하며, 한 분야를 파고들어 노하우를 쌓은 것도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첨가약제와 자재는 특별한 것을 사용하고,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 방수시공이 실패할 때는 비용을 안 받거나 전액 환불해준다.

스마일방수는 주택, 아파트, 빌라, 공장 등 모든 건축물을 시공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공 때에는 폴리그라우팅인젝션 기법과 'WS4000 1액형' 지수발포약제를 사용한다. 벽체와 천장 균열보수 및 외벽 방수는 그라우팅기법, 옥상 방수는 우레탄시공(도포), 실내주차장과 공장 바닥은 에폭시 기법으로 시공한다.

또 통상 평당 10만 원짜리 옥상 우레탄 시공엔 하도·중도·상도의 도포를 하지만, 스마일방수는 반드시 4차례의 도포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특히 마지막 도포 작업엔 햇빛 방지용 탑코팅제를 반드시 발라줘 완전한 방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오 사장은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꼼수는 부리지 않는다"며 "신용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백상 기자

시공 문의 051)754-0469 · 010-8534-9197